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'15년 4분기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(BSI) 연구용역 결과보고

서울시 소기업·소상공인의 현장 경기동향 등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'15년 4분기 체감경기지표 조사분석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연구명 : '15년 4분기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(BSI)

2. 조사 개요

가. 조사표본 : 1,200개 업체(소기업 400개, 소상공인 800개)

나. 조사기간 : '15. 11. 23 ~ 12. 4 (10일간, 전화설문조사)

3. 주요 결과

가. '15.4분기 실적(현황) 및 '16.1분기 전망(예상)

- '15.4분기 실적BSI는 80.9 기록, 전분기 실적 대비 5.5p 상승
 - '16.1분기 전망BSI는 85.8 기록, 전분기 전망 대비 5.9p 하락
- ⇒ 금년 6월 발생한 메르스 충격으로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모든 지수가 기준치(100)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

나. (4분기 현황) 소기업·소상공인의 매출, 영업이익 및 자금사정 등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되었으며, 업종별로는 '정보서비스업', '음식·숙박업', '건설업'은 BSI 지수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, '기술서비스업', '도소매업'은 전 분기 대비 하락

- '정보서비스업'은 출판 및 방송통신 분야의 연말 호조세가 반영되었으며, '음식·숙박업'은 메르스 진정 이후 해외 이용객 수요와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매출 등 회복세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됨
- 한편 전문 연구개발,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되는 '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'은 연말 각종 프로젝트 마감 등의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쳤으며, '도소매업' 경우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의식주 등 생활관련 품목 외에는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세부업종별로 체감경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

- 다. ('16.1분기 전망) '기술서비스업'(18.5p↓), '음식·숙박업'(16.2p↓), '도소매업'(11.3p↓)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 경기는 '15.4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, 현재 내수 중심의 회복세는 연말 할인행사 등의 일시적 효과라는 인식이 조사되고 있으며, 수출 감소와 해외경기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 내년도 전망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

4. 기타 사항

- 가. 서울시,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 등 오피니언리더 대상 조사결과보고서 송부
- 나. 서울시 언론보도(12.29), 서울통계 및 재단 홈페이지 통해 BSI 주요결과 공시

- 붙임 : 1. '15. 4분기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요약 1부.
2. '15. 4분기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주요결과 1부.
3. '15. 4분기 소기업·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조사결과보고서(서울연구원) 1부. 끝.